

특특뉴스

채권형펀드 설정액 20년만에 최대

지난달 채권형 펀드 규모가 약 20년 만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 펀드 규모는 1년 7개월 만의 최저였다.

미중 무역분쟁 악화에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공세까지 진행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채권형 펀드 설정액(이하 월말 기준)은 121조3,679억원에 달했다.

이는 1999년 10월(130조8,91억원) 이후 19년 9개월 만의 최대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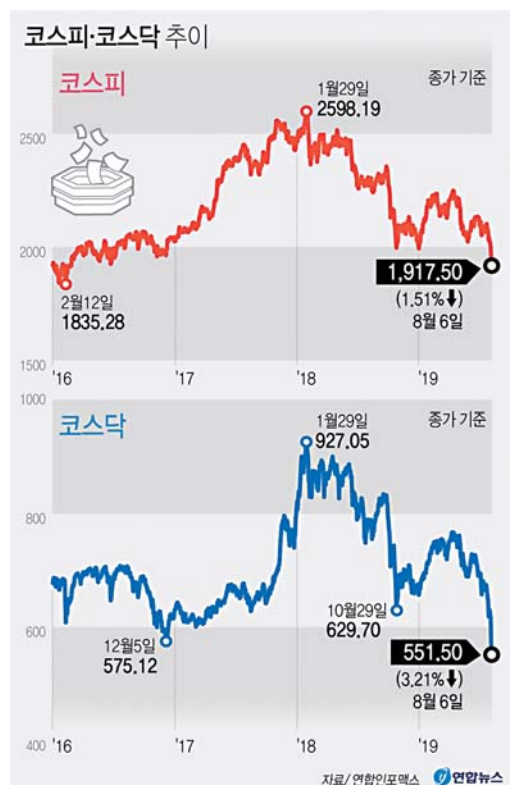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증폭되며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채권형 펀드와 반대로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79조3,464억원으로 지난 2017년 12월(77조8,762억원) 이후 1년 7개월 만의 최저치로 줄었다.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올해 1월만 해도 88조원을 웃돌았지만 이후 감소세가 지속했다.

그래픽 경제



코스피가 6일 1,910대로 뒷걸음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48포인트(1.51%) 내린 1,917.50으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6년 2월 29일(1,916.66) 이후 3년 5개월여만의 최저치다. 지수는 전장보다 46.62포인트(2.39%) 내린 1,900.36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는 1,891.81까지 추락했다. 코스피가 장중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것도 2016년 6월 24일 이후 3년 1개월여 만이다. 당시 코스피 장중 저점은 1,892.75였다.



폭염...채소류 값 '고공행진'

생육부진 출하 감소 상추·애호박 폭등

수박·포도 등 계절과일은 소폭 내림세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폭염으로 농수산물 생육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채소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장에 따르면 광주·전남 22개 시·군(여수시 거문도·초도 제외)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9일째 폭염 주의보 및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폭염에 의한 생육여건 악화로 상추, 오이, 호박 가격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으며 수박, 포도 등 계절 과일은 소폭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청상추 100g 소매가격은 2주전 700원에서 1,500원으로 가격이 114.29% 폭등했다.

애호박도 2주전 1개당 1,000원에 거래되던 것이 2,000원으로 가격이 100% 올랐다.

폭염의 여파로 출하량이 줄어든 오이(취청)도 10개당 7,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가격이 71.43% 치솟았다.

풋고추는 방학으로 인한 급식수요는 감소했지만 휴가철 수요 증가로 보험세를 보이면서 2주전과 동일하게 100g당 700원을 유지했다.

배추와 무는 고온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 등으로 공급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보험세를

◇주요 농산물 가격비교 (2주 전 가격→5일 기준 가격)

상추 (+114.29%) 700원 → 1,500원	풋고추 (보합) 700원 → 700원	포도 (-22.22%) 9,000원 → 7,000원
애호박 (+100%) 1,000원 → 2,000원	배추 (보합) 3,500원 → 3,500원	수박 (-5.56%) 18,000원 → 17,000원
오이 (+71.43%) 7,000원 → 12,000원	무 (보합) 2,000원 → 2,000원	계란 (-5.26%) 3,800원 → 3,600원

보였다. 2주전 1포기(2.5~3.5kg)당 3,500원이던 배추와 1개(2~2.5kg)당 2,000원에 거래된 무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무더위 해갈용으로 소비량이 많은 수박은 잦은 우천에 따른 당도 저하로 2주전 1개(10kg)당 1만8,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가격이 5.56% 내리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주출하시기를 맞은 포도는 공급량 증가로 1kg당 7,000원으로 2주전 9,000원보다 가격이 22.22% 내리면서 약세를 형성하고 있다.

계란값은 대부분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급식 납품용 수요 감소로 30개들이 1판당 가격이 2주전 3,800원에서

3,600원으로 5.26% 내렸다. aT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생육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채소류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기타 대부분 품목은 학교 방학 기간에 따른 급식용 납품수요 감소 영향으로 가격 등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농협 창립 제58주년 기념 표창'에서 영암 삼호농협이 총화상을 수상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삼호·평동농협 '총화상' 수상 쾌거

창립 58주년 기념 표창

평동농협과 삼호농협이 '농협 창립 제58주년 기념 표창'에서 농협 최고상인 총화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화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1,100여개 농협을 대상으로 진철 봉사, 인화 단결, 사회공헌, 업무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시·도 단위당 1개 농협에 시상한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서는 영암 삼호농협 형성도 조합장이 총화상 수상과함

께 영암 남주농협 이재면 조합장은 이달의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을, 강령구 장흥군지부장과 울촌산단지점 권영철 과장이 이달의 자랑스러운 농협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업추진 우수상 중 지도사업종합평가 분야는 고흥 팔영농협(조합장 이재후), 여수 여천농협(조합장 박상근)과 함평축산농협(조합장 김영주), 나주배원에농협(조합장 배민호)이 각각 수상했다.

숨은 일꾼상 분야에는 논타작물재배

추진 우수분야에 임성재 고흥군지부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우수분야에 이명만 함평군지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지역에서는 평동농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동농협은 지역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확대와 유통활성화 도모를 통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 6곳을 운영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우수조합 광주시상 수상과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 사무소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미애 기자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유지해야"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서 우려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방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인력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제조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나 높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한다면 현상이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대기업은 1.9%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6.8%에 이른다.

참석자들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은 최소한의 필수 인력이라며 배정인력 유지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

지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과 정책 과제' 발제문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의 문제점, 병역지원 감소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 활용 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7억여 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10조 6,64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629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배정인원이 축소되면 국가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동인력위원회는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신속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선 소위원회, 산업안전 보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김용현 기자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씩 건강매뉴

- 뼈 건강 위한 칼슘, 고칼슘, 비타민D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